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의 이용패턴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명 권*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 건축학부 교수

A Study on the User's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Jeol-young Seaside Park

Myung-Kwon Lee

* Division of Ocean Space & Architecture,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606-791, Korea

요약 : 최근 개인의 수입증대와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도시에서 수변공간의 확대와 워터프런트의 발전 가능성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안역에 위치한 영도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자의 이용패턴조사와 행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절영해안산책공원은 산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바다를 보러, 조깅, 휴식 등의 순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책로로서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 주차 수의 부족과 주차장의 개발확보 등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자 패턴, 이용자 특성, 해안산책로

Abstract : Recent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personal income and enough time to spare, people demand the expansion of waterfront space in the city and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s possibility. In this study, which takes a place of the Jeol-young seaside park in Yeong-do, investigated for the user's pattern of seaside park located in coastal area. And analyzed into user's attributes and a feeling of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Jeol-young seaside park is facilitated for taking a walk. It also tends to be preferred for the ocean view, jogging, relaxation, and so on. 2) The Jeol-young seaside park has to be ensured with its safety and convenience of esplanade. In order to provide the user's high satisfaction, more facilities of expansion and parking area are demanded to be developed.

Key words : Jeol-young Seaside Park, User's Pattern, Characteristics of User, Esplanade

1. 서론

근래 들어 도시의 연안에서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 공간 확대 요구와 이러한 공간의 확보가 도시생활자의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개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연안역의 이용과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99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향후 연안관리사업은 친환경적 친수 공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OK21(Ocean Korea 21) 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 연안 및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영도구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00년 12월에 천혜의 아름다운 영도해안인 제2송도에서 동삼관리까지의 길이 3km(폭 2~3m)구간에 전망대와 운동시설 및 소규모 테마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절영해안산책공원을 조성하여 개장한지 4년여가 경과하였다.

본 논문은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특성과 산책공원의 이용패턴을 파악함

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산책공원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2.1 연구방법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친수공원의 이용패턴과 만족도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0/1, 10/2, 11/20, 11/21, 11/23, 11/24, 11/25일의 7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중의 특성과 주말의 이용특성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시간은 06:30~18:00까지로 한정하였고 설문 표본 수는 총 392부이며 유효 표본 수도 392부이다. 이것은 현지에서 이용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표기는 이용객에게 직접 작성을 의뢰하거나 대답을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기입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 대표저자 : 이명권(중신회원), mklee@hhu.ac.kr, (051)410-4584

본 연구의 대상인 절영해안산책공원은 Fig 1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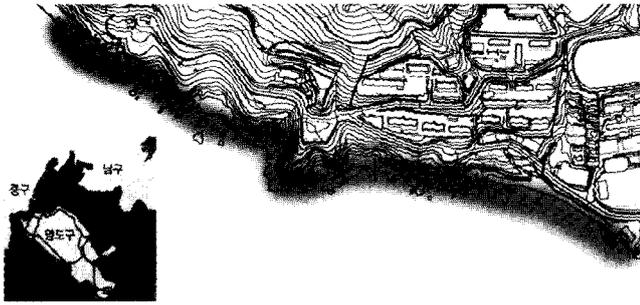


Fig. 1 Location of the seaside park

2.2 대상지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절영해안산책공원의 구간구분은 먼저 간선도로에서 구간으로의 접근용이성과 평탄한 정도, 포장도 등의 인공적 요소의 정도와 고저 차, 경사도 등 도보이동의 용이성과 구간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편의상 4구간으로 나누었으며 (Fig 2 참조) 구간 별 특성 및 문제점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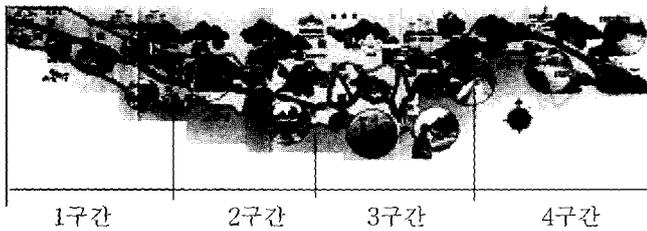


Fig. 2 Section of the block

• **1구간(관리동-백련사 입구)** : 도로에서 구간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비교적 평탄하고 직선상으로 이루어진 시멘트 포장도로 건설자는 물론 노약자나 부녀자의 이용이 비교적 많은 구간임

- 확실적인 시멘트 바닥 탈피를 위한 바닥재와 색채의 도입 및 단차 등을 두어 바닥공간의 변화가 필요
- 좌측 사면부의 녹화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시설, 구간 내 벤치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방풍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파고라 및 차양시설 필요 유아 및 영아를 위한 적절한 공간 필요(기저귀 교체 등)
- 애완동물로 인한 쓰레기 문제 발생
- 하수구 시설의 시선차폐와 정화시설 시급
- 산책로 끝부분에 운동시설 및 공간 필요

• **2구간(백련사-합지골 수련원)** : 도로에서 구간으로의 직접 접근이 어려우며 고저와 경사가 심해 구간길이에 비해 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1구간에 비해 운동량이 많이 소요됨

- 주차시설의 미비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파고라 및 차양시설 필요

• **3구간(합지골 수련원-75광장)** : 2구간과 지형적 특징은 비슷하며 구간길이에 비해 계단이 많고 가파른 곳으로 운동량이 비교적 많이 소요됨

- 경관 및 조망은 좋으나 연계시설이 없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길지 못함
- 75광장의 적극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가족, 친구단위의 피크닉 객을 위한 공간이 필요

• **4구간(75광장-중리선착장)** : 도로에서의 접근이 비교적 쉬우며 고저 차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며 평탄한 곳이 구간 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시멘트 포장 등의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혼재된 구간임

- 현재 밭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 75광장 및 인근의 파고라 등 시설의 홍보부족으로 활용이 미흡함
- 간선도로에서 산책로로 진입하는 곳의 화단과 연결되는 산책로 진입부의 확장이 필요
- 이용객의 주 이용시간대와 관리시간대가 맞지 않아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므로 시간대의 조정 등 대처방안이 필요
- 선착장 주변의 오폐수처리 및 제반 환경 정비와 연계시설이 필요

3. 이용패턴분석

3.1 설문조사의 내용 및 개요

절영해안산책공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패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Table 1 Property of user

성 별	연 령	직 업
1.남 2.여	1. 0-19세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1. 회사원·공무원 2.상공·서비스업(자영업) 3. 자유업(아르바이트업) 4. 농림업·어업 5. 주부 6. 학생 7. 무직 8. 기타
동 반 자	체재시간	주 거 지
1. 1인 2. 가족 3. 가족(유아동반) 4. 아는 사람 5. 기타 · 친구	1. 0-10분 2. 10-30분 3. 30-60분 4. 60-90분 5. 90-120분 6. 120분 ~	1. 영도구 동 2. 부산시 구 동 3. 경상북도 4. 경상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충청북도 8. 충청남도 9. 기타

Table 2 Purpose of user activities

해빈공원에서의 활동 및 구간별 활동 (3가지 선택)	
1. 산책	2. 아이들과 놀러
3. 낚시	4. 윈드서핑
5. 버드 워칭	6. 일광욕, 오수
7. 조깅	8. 데이트
9. 식물을 보러	10. 사진·사생
11. 자연이 접하러(바다 보러)	
12. 경관을 보러	
13. 그 외 스포츠를 위해	
14. 독서	15. 휴식
16. 바비큐	17. 공원 내 시설 이용
18. 기분전환	19. 피크닉
20. 그냥 들렀다	21. 그 외

설문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7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얻어진 설문표본 수 = 10/1(43부), 10/2(30부), 11/20(71부), 11/21(67부), 11/23(72부), 11/24(79부), 11/25(30부)로 계 392의 유효 설문표본을 획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첫째, 이용자의 성별, 연령층별, 직업별, 체제시간과 동반자 수 및 주거지로 나누어 이용자 속성을 구별 평가(Table 1)하였고 둘째, 이용자에게 산책공원에서의 활동목적에 대해 질문하였다(Table 2). 셋째, 산책공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의 경관과 바다로의 접근용이성 등 21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만족도 평가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단계 척도로 평가하였다(Table 3).

Table 3 Satisfaction of the seaside park

질문 항목	만족도					구간별	비고
	-2	-1	0	1	2		
1. 해변의 경관							
2. 공원의 넓이(크기, 규모)							
3. 스포츠 시설의 충실							
4. 해변의 넓이(크기)							
5. 마린스포츠 시설의 충실도							
6. 바다로의 접근 용이성							
7. 매점 수							
8. 낚시터 확보							
9. 바다의 깨끗함							
10. 해변의 안전성							
11. 화장실 수							
12. 광장의 넓이							
13. 해변 쓰레기 상황							
14. 벤치 수							
15. 파고라 유무							
16. 공원내 쓰레기 상황							
17. 휴식시설 수							
18. 식물의 종류							
19. 산책로의 만족도							
20. 주차장의 넓이(크기)							
21. 식물의 양							

3.2 이용객의 속성 분석

3.2.1 이용객의 성별

절영해안산책공원의 각 구간별 이용객 성비에 관한 사항을 Table 4와 Fig 3.4에 정리하였다.

절영해안산책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성별평균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남77%, 여 23%이며 주말에는 남63%, 여37%로 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중대비 주말이 0.82배 감소하고 여의 이용은 주중대비 주말이 1.61배 증가하였으며 남녀 이용자의 성비증감을 보면 남 우세경향이 3.35배(주중)에서 1.70배(주말)로 약 200% 정도 감소하였다. (Table 4, Fig 3, 4)

Table 4 Ratio of males to females (%)

구간	남		여	
	주중	주말	주중	주말
1	61	44	39	56
2	86	60	14	40
3	77	68	23	32
4	87	82	13	18
평균	77	63	2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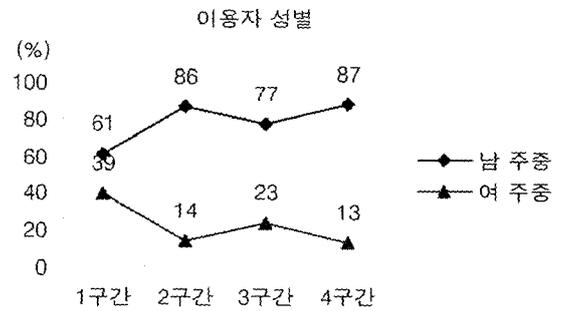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males to females of user (weekday's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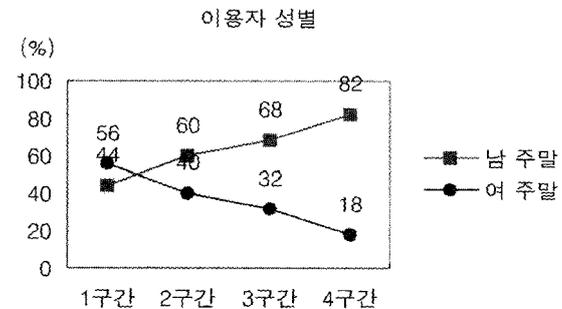


Fig. 4 Comparison of males to females of user (weekend's average)

3.2.2 이용객의 연령

이용객의 연령에 대한 사항을 Table 5와 Fig 5, 6에 정리하였다.

Table 5 Ratio of ages (%)

구간	19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1	0	5	8	15	16	15	20	34	25	13	31	18
2	3	5	5	13	7	20	32	29	30	25	19	8
3	3	0	10	18	18	21	24	32	22	18	23	11
4	3	0	8	3	8	9	12	35	42	35	27	18
평균	2	3	8	13	13	17	22	31	29	23	2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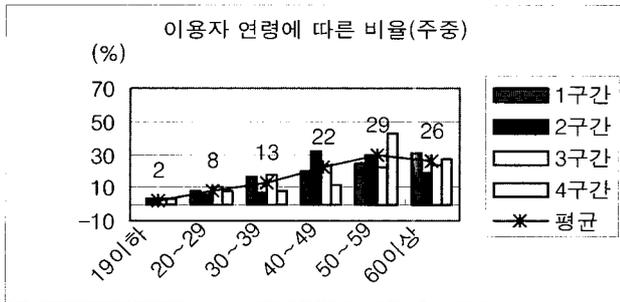


Fig. 5 Age of user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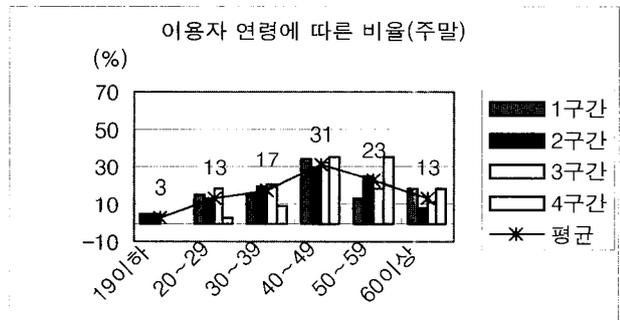


Fig. 6 Age of user (weekend)

이용객 연령층의 전체 평균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중의 경우는 50-59세가 29%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26%, 40-49세가 22%, 19세 이하가 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40-49세가 31%로 가장 높고, 50-59세가 23%, 30-39세가 17%, 19세 이하가 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책공원의 이용은 중장년층이 집중되어 나타나기는 하나 20대 이상의 연령층에 의해 고루 이용되고 있으며 최대 이용객의 연령층이 주중에 비해 주말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이용객의 직업

이용객의 직업에 대한 사항은 Table 6과 Fig 7, 8에 정리

하였다.

Table 6 Ratio of user's job (%)

직업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구간 평균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회사원, 공무원	12	18	14	32	10	23	3	35	10	27
상공, 서비스업	20	23	16	14	15	17	12	12	16	17
자유업(아르바이트)	4	8	11	3	13	11	5	3	8	6
농림업, 어업	2	3	0	3	3	3	0	0	1	2
주부	25	25	8	22	22	11	10	15	17	19
학생	4	13	5	15	10	16	10	0	7	11
무직	29	10	35	8	24	16	47	35	34	17
그외	4	0	11	3	3	3	13	0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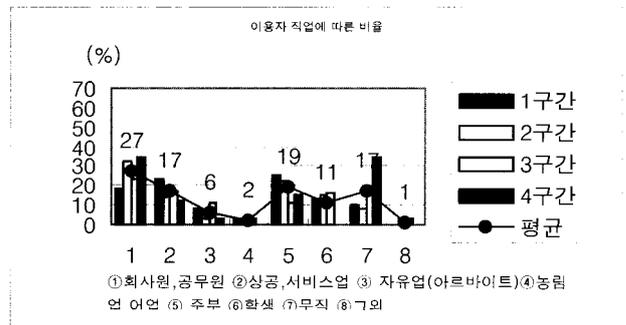


Fig. 7 User's job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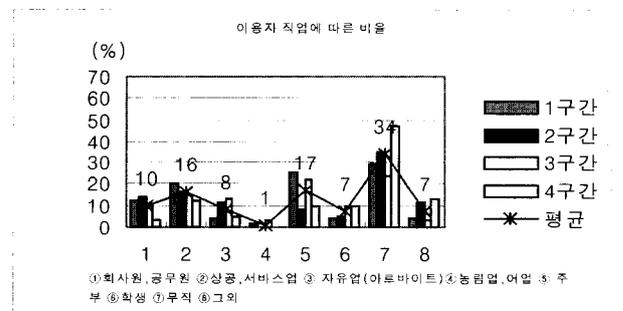


Fig. 8 User's job (weekend)

이용객의 직업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주중의 경우에는 무직이 34%로 가장 높고 주부가 17%, 상공, 서비스업 등의 자영업이 16%, 회사원, 공무원이 10%, 자유업이 8%, 학생과 그 외가 7%, 농림, 어업이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는 회사원, 공무원이 27%로 가장 높고 주부가 19%, 자영업과 무직이 17%, 학생이 11%, 자유업이 6%, 농림업, 어업이 2%, 그 외가 1%의 순으로 나타나 주중과 주말의 이용자 직업군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고 이용자의 직업군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중에는 무직자와 주부의 이용이 두드러지고 주말에는 회사원, 공무원과 주부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자영업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의 이용이 큰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으며 주부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을 불문하고 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어

향 후 산책공원의 시설 및 개선방향 설정 시 참고 해야 할 이용자 계층임을 알 수 있다.

3.2.4 이용객의 동반여부

이용객의 동반여부에 대한 사항은 Table 7과 Fig 9, 10 에 정리하였다.

Table 7 Ratio of user's companion (%)

구간	1인		가족		가족 (유아)		지인, 친구		그외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1	51	46	18	33	4	5	27	13	0	3
2	64	42	11	25	3	10	22	23	0	0
3	52	50	28	13	5	13	15	24	0	0
4	60	44	15	12	10	18	15	26	0	0
평균	57	46	18	21	5	11	20	2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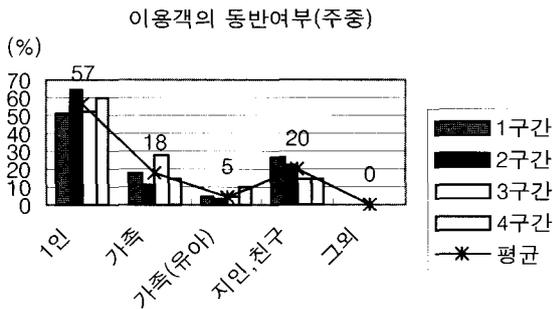


Fig. 9 User's companion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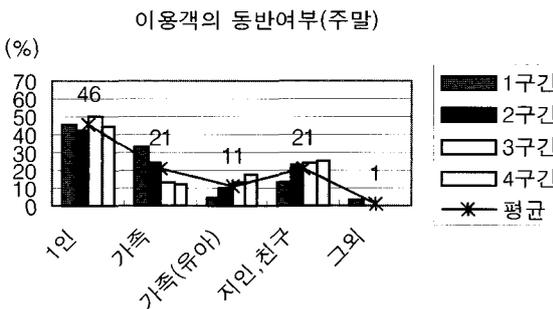


Fig. 10 User's companion (weekend)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의 평균적인 동반자 여부 현황을 보면 주중 57%, 주말 46%로 이용자 본인 1인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인, 친구가 주중 20%, 주말 21%를 차지하고 가족이 주중 18%, 주말 21%, 유아동반의 가족이 주중 5%, 주말 11%를 차지하였다. 특히 유아동반을 포함한 가족 이용의 형태가 지인, 친구보다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인의 이용은 주중보다 주말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가족(유아동반 포함) 및 지인, 친구와 함께 찾는 이용형태는 주중보다 주말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은 향후 공원의 시설 및 개선방향 설정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3.3.5 이용객의 체제시간

이용객의 체제시간에 대한 사항은 Table 8과 Fig 11, 12에 정리하였다.

Table 8 Ratio of user's staying time (%)

구간	10'미만		10'~30'		30'~60'		60'~90'		90'~120'		120'이상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1	0	3	10	10	33	41	27	28	20	3	10	15
2	0	3	0	0	24	39	27	28	19	20	30	10
3	0	0	13	3	25	18	15	34	20	24	27	21
4	0	0	3	0	20	15	47	38	15	29	15	18
평균	0	1	7	3	26	29	29	32	18	19	2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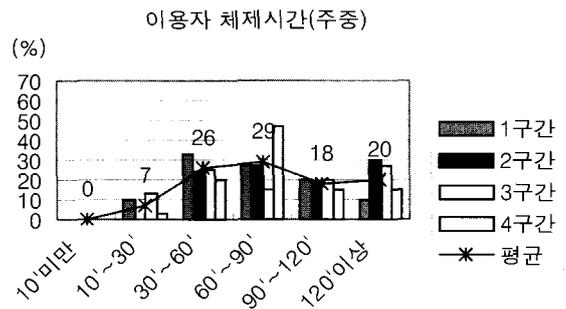


Fig. 11 User's staying time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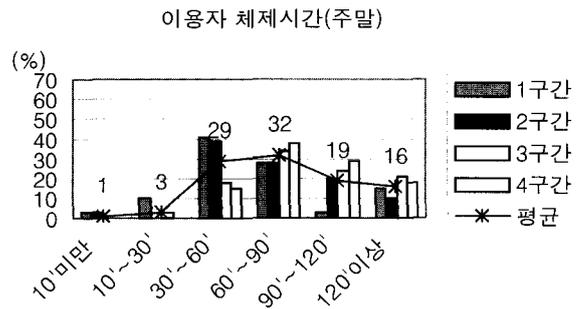


Fig. 12 User's staying time (weekend)

이를 보면 주중의 경우 60~90분이 29%로 가장 높고 30~60분이 26%, 120분 이상이 20%, 90~120분이 18%, 10~30분이 7%, 10분미만은 0%의 순이며 주말의 경우 60~90분이 32%로 가장 높고 30~60분이 29%, 90~120분이 19%, 120분 이상이 16%, 10~30분이 3%, 10분미만이 1%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 체제시간은 30~90분 사이가 주중 55%, 주말 61%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의 체제도 주중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의 이용패턴과 특성에 관한 연구

20%, 주말 16%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30분 이하의 체제는 매우 미약하여 산책공원 내방객의 평균 체제시간(60~90분 이상)은 비교적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적절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원구성 및 내용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6 이용객의 거주지

이용객의 거주지에 대한 사항은 Table 9와 Fig 13, 14에 정리하였다.

Table 9 Ratio of user's residence (%)

주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구간평균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영도	90	97	70	70	72	52	79	76	78	73
부산	8	3	27	25	28	39	12	24	18	23
경상남도	0	0	0	0	0	3	3	0	1	1
경상북도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0	0	3	5	0	3	3	0	1	2
전라북도	0	0	0	0	0	3	3	0	1	1
충청남도	0	0	0	0	0	0	0	0	0	0
충청북도	0	0	0	0	0	0	0	0	0	0
그외	2	0	0	0	0	0	0	0	1	0

이를 보면 영도 거주자의 이용이 주중 78%, 주말 73%로 가장 높고 부산 거주자는 주중18%, 주말 23%로 영도 외 거주자의 이용이 증가하며 주말에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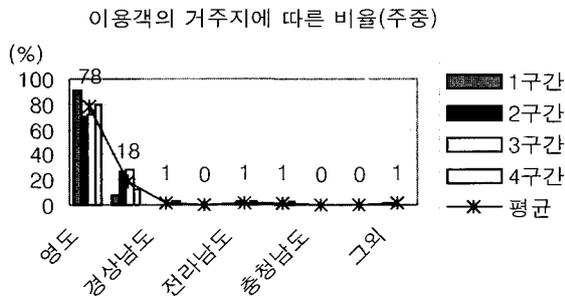


Fig. 13 User's residence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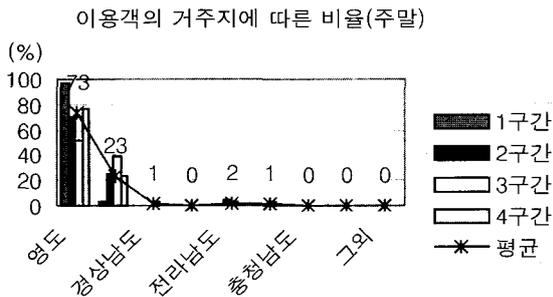


Fig. 14 User's residence (weekend)

또한 그 외 지역인 경남과 전남, 전북 및 서울 경기 거주자의 이용이 1%(주중 주말)씩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산책로가 있는 영도지역민의 이용이 가장 많고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용이 주중 대비 주말에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외에서의 방문객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산책공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공원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절영해안산책공원의 이용 목적

산책공원 이용객의 방문활동 목적과 구간별 활동목적을 조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Fig 15, 1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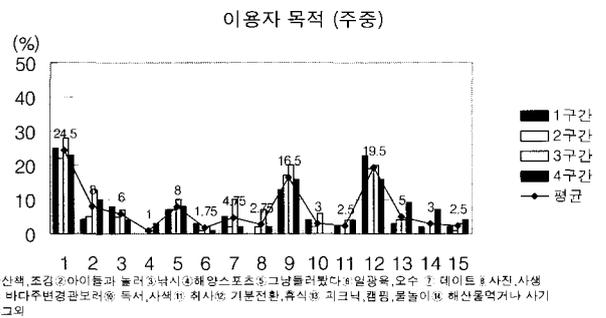


Fig. 15 Purpose of utilization in each block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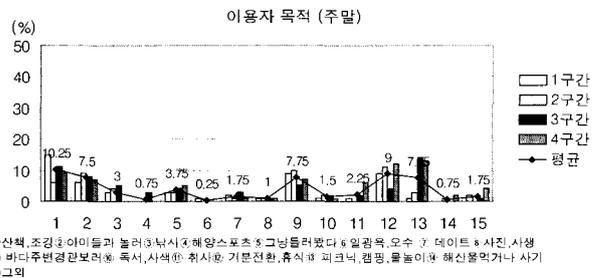


Fig. 16 Purpose of utilization in each block (weekend)

먼저 주중의 산책로 방문활동 목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1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산책, 경관을 보러, 바다를 보러, 공원 내 시설이용, 기분전환, 조깅의 6항목을 들 수 있다.

특히 산책은 전 구간에서 20%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는데 2구간 39%, 1구간 27%, 4구간 26%, 3구간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관을 보러 는 2구간 17%, 1구간 11%, 4구간 10%의 순이며 바다를 보러 는 4구간 14%, 3구간 11%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원 내 시설이용은 3구간 13%, 4구간 11%순이며, 기분전환은 4구간 13%, 3구간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깅은 2구간 13%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말의 산책로 방문활동 목적에서 10%를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산책, 바다를 보러, 경관을 보러, 조깅, 휴식, 공원 내 시설이용, 기분전환의 7항목으로 늘어났다. 특히 산책은 3구간 17%를 제외하고는 4

구간 26%, 2구간 24%, 1구간 22%의 순이며 경관을 보러 는 전 구간에서 10%를 상회하나 1구간 16%, 2구간 15%, 3구간 12%, 4구간 12%의 순으로 나타났고 바다를 보러 는 2구간 18%, 3구간 13%, 4구간 11%, 1구간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관을 보러 는 전 구간에서 10%를 상회하는데 1구간 16%, 2구간 15%, 3구간 12%, 4구간 12%의 순이고 조깅은 1구간 16%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은 1구간 13%, 공원 내 시설이용은 4구간 12%, 기분전환은 4구간 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원 내 시설이용이나 기분전환, 휴식은 주중에 비해 주말이 증가하였으며 바다를 보러와 경관을 보러 는 주중에 비해 주말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5. 산책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산책공원 이용객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Fig 17, 1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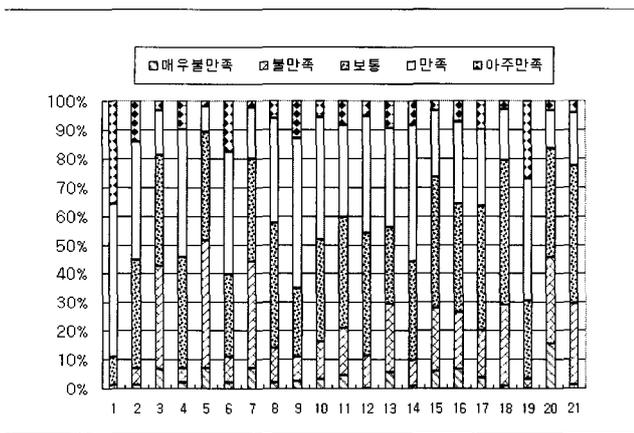


Fig. 17 Satisfaction of user (weekdays'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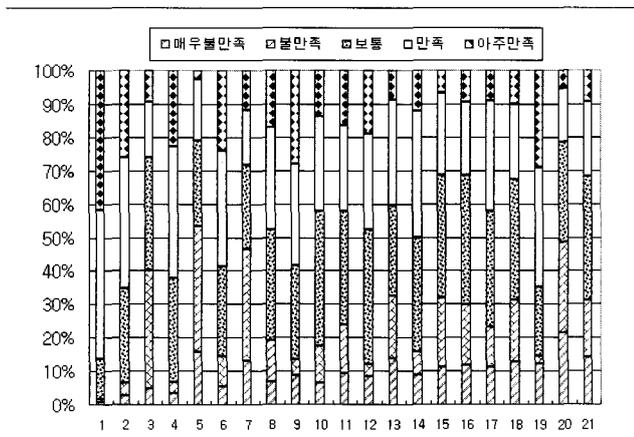


Fig. 18 Satisfaction of user (weekend's average)

이중에서 주중 방문 활동 목적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해변의 경관 89%, 산책

로의 만족도 70%, 바다의 깨끗함 66%, 바다의 접근성 65%의 4항목이며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공원의 넓이 55%, 해변의 넓이 54%, 벤치 수 57%로 3항목, 4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낚시터 확보 42%, 해변 안정성 49%, 화장실 수 48%, 광장 넓이 46%, 해변의 쓰레기 44%의 5항목이다.

한편 주말에는 6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해변의 경관 87%, 산책로 만족도 64%, 산책로 넓이 64%, 해변의 넓이 62%의 4항목,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바다의 접근성 59%, 바다의 깨끗함 58%, 벤치 수 50%의 3항목, 4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낚시터 확보 48%, 광장의 넓이 48%, 화장실 수 42%, 해변의 안전성 42%, 해변의 쓰레기 41%의 5항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불만족을 포함한 불만족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중 방문 활동 목적 중 불만족도가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50% 이상의 가장 높은 불만족도를 보인 마린 스포츠의 충실 51%를 들 수 있으며 4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주차장의 넓이 46%, 매점 수 44%, 스포츠 시설의 충실 43%의 3항목, 20% 이상의 불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화장실 수 21%, 해변의 쓰레기 29%, 식물의 종류 29%, 파고라 28%의 4항목을 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산책공원에서 4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 수는 주중 11항목 52%, 주말 12항목 57%로 조사대상 21항목 중 과반수가 넘는 항목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도는 주중, 주말 모두 9항목(43%)으로 나타났다. 불만족도는 마린 스포츠의 불충실이 50%이상으로 가장 높고 매점 수, 주차장의 넓이, 스포츠 시설의 불충실 순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따라서 절영해안산책공원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더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바람직한 산책공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만족도가 높은 상기항목들에 대한 시정 보안과 적극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본 논문은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책로의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공원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산책공원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더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바람직한 공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산책, 해양 경관 감상, 공원 내 시설 이용, 기분전환, 조깅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매점 수, 주차장의 확보 등 불만족도가 높은 항목들에 대한 시정 및 보안과 아울러 각 구간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절영해안산책공원 이용객의 성별을 보면 남자(주중77%-주말63%), 여자(주중23%-주말37%)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주중에는 50-59세(29%), 60세 이상(26%), 40-49(22%)세의 순이며, 주말에는 40-49세(31%), 50-59세(23%), 30-39세 이상(17%)의 순으로 나타나 중 장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인의 이용(주중57%-주말46%)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체재시간은 60-90분(주중29%-주말32%)이 가장 많은 반면 30분 이하(7%-3%)의 체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의 거주지분포를 보면 영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용이 주중과 주말 공히 70%를 상회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객의 직업은 주중에는 무직자(34%), 주부(17%)가, 주말에는 회사원·공무원(27%)과 주부(19%)가 가장 두드러져 이러한 이용 계층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이용도 증가를 위한 방안이 향후 산책공원의 시설 및 개선방향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의 표본수를 392부로 하여 조사의 일반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조사시기가 다소 편중된 점도 있어 향후 연구의 일반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일관되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배현미 외,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1999
- [2] 이명권 외, “21세기 해양개발, 기문당, 1997
- [3] 이명권 외, “해양건축 용어사전, 기문당, 1997
- [4] 일본건축학회, “친수공학시론”, 신산사 사이텍크, 2002
- [5] 일본토목학회, “항의 경관설계 기문당, 1991
- [6] 최재훈, “자연형 해안공원 이용객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논문, 2003
- [7] 쿠로야나기 외, “도시 임해부 이용자의 수변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 논문집 No.577
- [8] 쿠로야나기 외, “관리자가 본 해변공원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일본건축학회 논문집, 2003
- [9] 쿠로야나기 외, “해양시설의 계획과 설계”, 미리내, 1992

원고접수일 : 2004년 4월 30일

원고채택일 : 2004년 6월 3일